청화 대종사 가르침, 디지털로 되살린다

청화사상연구회 첫 하계 워크숍
선양 사업 중장기 과제 논의 진행
2.7TB · 2만3000건 자료 정리
청화 스님 사상 세계화 기반 마련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벽산무주회와 청화사상연구회는 8월 31일 무안 혜운사에서 '2026 청화사상연구회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화 큰스님의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을 논의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청화 대종사(1924~2003)가 남긴 방대한 자료와 수행사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문도들의 선양사업이 본격화된다.

청화 대종사의 탄생지인 무안 혜운사(주지 정헌 스님)는 8월 31일 청화기념관에서 '2026 청화사상연구회 하계 워크숍'을 열고 유품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한편 학술연구와 기념관 운영을 연계한 중장기 선양사업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벽산무주문도회 부의장 무상 스님, 성륜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광륜사 주지 명원 스님, 성륜사 주지 주원 스님, 혜운사 주지 정헌 스님을 비롯해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와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이재수 교수의 '청화 대종사 아카이브 사업 현황과 과제' △배광식 회장의 '청화사상 선양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이재수 교수의 '학술세미나 운영 기획안' △정헌 스님·이재수 교수의 '청화기념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화 대종사가 남긴 방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벽산무주문도회는 지난 7월 7일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원천자료는 약 2.7TB, 2만3000여 건으로 친필과 사진, 문서, 음성법문,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회는 중복자료를 선별하고 오래된 음성·영상 파일을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한편 파일명과 분류체계를 정비해 검색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카이브는 청화 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생애·수행·포교·사상' 등 4대 영역으로 체계화한다. 생애는 이재수 교수, 수행은 배 회장, 포교는 조은수 서울대 교수, 사상은 조준호 부회장이 맡아 집필할 계획이다. 향후 법문과 사진·영상·출판물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청화넷' 구축도 추진한다.

학술연구도 이어간다. 2027년 제14차 학술세미나는 '청화 대종사 염불선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대주제로 열고, 인도불교와 동아시아·한국불교사에서 염불선의 위상을 조명하는 한편 세계 수행문화 속 청화 스님 염불선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청화 대종사의 유품 101건 162점을 중심으로 한 혜운사 청화기념관의 개관과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념관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해 수행·교육 거점으로 활용하고, 실상염불선 만일회와 청화사상 불교대학, 순례길 등으로 선양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무상 스님은 "청화 큰스님은 청정한 수행과 정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수행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청화사상연구회가 큰스님의 뜻을 이어 부처님과 조사들의 정통불법을 바르게 펼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학 통한 치유…'금강위크' 개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명 금강정사 일원서 개최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내 및 구름산 일대에서 '제4회 문학으로 만드는 마음의 평안, 금강위크(Week)'를 개최한다.

'금강위크'는 불교 철학과 문학·예술을 융합해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도록 돕는 금강정사의 대표적인 대중 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사찰의 새로운 미래이자 불교문화 보급의 거점이 될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도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 금강정사 경내와 명상길에서는 대중들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내 안에 부처를 켜다'를 주제로 △마음의 원력을 다지는 '불교기도문 쓰기 명상' △간절한 발원을 돌에 새기는 '소원돌멩이 쓰기 명상' △구름산의 자연 속을 걸으며 번뇌를 내려놓는 '걷기 명상'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10월 18일과 25일 오후 1시 대웅전에서 지안 고요히 메디테이션랩 대표가 이끄는 '싱잉볼 명상-내 안에 붓다를 찾다'가 진행된다. 소리의 공명과 파장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깊은 이완과 치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특별한 법석과 강연도 마련돼 있다.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10월 둘째 주부터는 불광출판사 인기 저자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 시리즈'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펼쳐진다.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명상힐링 산사콘서트 및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이 거행된다.

가섭 스님은 "금강위크는 청정한 '불성(佛性)'의 씨앗을 키우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라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을 기점으로 금강정사가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문화향유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여수불교계, 세계섬박람회 성공 응원

향일암 등 5개 사찰 · 보문복지회
입장권 3000만원 구매 약정해
신도 ·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전달



여수불교계가 9월 5일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3000만원 구매 약정식'을 개최하고,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여수불교계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향일암과 흥국사, 은적사, 달마사, 용문사 등 여수 지역 5개 사찰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는 8월 28일 여수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갖고 3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향일암 주지이자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 스님을 비롯해 용문사 주지 해덕 스님, 은적사 혜웅 스님, 김철희 여수불교신도회장, 서영학 여수시장,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 사무총장, 이준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의 큰 축제에 불교계도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매한 입장권은 각 사찰 신도를 비롯해 보문복지회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찰과 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단체관람도 추진해 박람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수불교계는 지역 사찰과 복지법인의 참여에 이어 향후 종단과 교구 차원의 협력도 건의할 예정이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 등에 박람회 취지와 여수의 섬·문화 자원을 알리고,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연규 스님은 "여수섬박람회는 여수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큰 축제인 만큼 불교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뜻에서 지역 사찰과 보문복지회가 뜻을 모았다"며 "입장권을 신도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축제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불교계에서 큰 마음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박람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작은 부분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잘 준비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개도·금오도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전성수 총신도회장 임명

8월 27일 임명장 수여식



군산 동국사(주지 현적 스님)는 8월 27일 총신도회장에 전성수 불자를 임명했다.

주지 현적 스님은 전성수 신임 총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새로 취임한 총신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가 한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성수 신임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말씀처럼 사찰 발전과 신도 화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회장은 군산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심의위원, 군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군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회 위원, 군산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연합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은적사, 광명루 개축식 봉행



여수 은적사(주지 혜웅 스님)는 9월 1일 극락전 앞마당에서 '천년고찰 은적사 광명루 개축식'을 개최했다.

광명루는 기록상 1678년 처음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은적사는 지난해부터 건물을 해체·개축해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혜웅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불자들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신도들과 함께 잘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광명루 개축과 함께 현진 스님 초대전 '부처님, 섬을 치유하다'도 개막했다. 전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명루에서 이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만해 스님 고향 홍성서 정신 기리다

8월 29일, 다례 · 창작시 시상
대상 송현준 '업 심우장에서'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와 불교신문은 8월 29일 홍성 만해 한용운 생가지에서 '만해 스님 탄신기념 다례 및 창작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사영반을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을 기린 이날 행사는 헌향과 헌다에 이어 시낭송과 기념사, 제1회 만해 창작시 공모전 시상과 시노래 공연으로 진행됐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만해 스님의 꿋꿋한 지조와 깊은 통찰은 147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다"며 "앞으로 행사를 더욱 확대해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와 창작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 스님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은 우리 민족의 척주가 됐다"며 만해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회 '만해 창작시 공모전'에는 164명이 492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33편이 본선에 올라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입선 7명 등 최종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송현준 씨의 '업 심우장에서'가 차지했으며 입선에는 △김동현 '침묵의 꽃' △황명자 '임(恁)' △김학중 '돌죽비를 치다' △김진대 '구름바다' △박기준 '북향화' △김성신 '백담사에서' △류한석 '만해의 집'이 선정됐다. 수상작을 비롯한 본선 진출 작품들은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홍성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예술로 조명한 '無明'

정선 정암사, '무명의 초상'展
9월 1일~10월 5일 봉은사 등서


가수 김창완의 '붓의 노래2'.

불교의 '무명(無明)'을 예술의 시선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는 '2026 정선 정암사 회화전'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봉은사 보우당과 정선 하이원리조트, 정선 아리샘터에서 순회·개최한다.

'무명(無明)의 초상'을 주제로 한 올해 전시에는 회화·조각·사진·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해 온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한국화의 전통을 이어온 직헌(直軒) 허달재와 정종미를 비롯해 김병주, 김창완, 박희섭, 서동욱, 송명진, 원성원, 유화수, 이강욱, 정동현, 차현욱 등이 각자의 조형언어를 선보인다.

주지 천웅 스님은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흔들림의 자리, 즉 무명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마주하는 이 여정이 관람객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 정암사 회화전'은 9월 1~9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을 시작으로 9월 11~20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그랜드 호텔 메인타워, 9월 22일~10월 5일 정선 아리샘터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백중기도 회향

8월 30일 극락보전서 회향법회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 스님)은 8월 30일 도솔암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우란분절 백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솔암은 극락보전 앞 특별법단에 대형 반야용선을 설치해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영가시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장엄하게 장식된 반야 용선을 선두로 특별 소대로 이동해 소전 의식을 엄수했다.

감원 성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란분절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고 조상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모인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효를 실천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